

<서평>

## 토라의 신학

김영혜 외

서울: 동연, 2010, 342쪽

김지훈\*

### 1. 내용 요약

“1장-토라 연구의 최근 동향”에서 이영재는 J, E, D, P 네 가지 문서로 오경을 접근해 온 양식 비평과 전승사 연구를 소개하면서 특별히 1970년대 이후의 오경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있다. 오경 연구의 최근 동향에서는 오경 연구의 주류였던 통시적 읽기와 최근 급부상한 공시적 읽기와 나머지 6개의 소항목(‘신명기 학파’, ‘E 문서와 J 문서가 의문시 됨’, ‘오토의 공시 읽기’, ‘신명기/창세기에 대한 새로운 연구’, ‘P가 누구인가?’)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가장 먼저 통시적 읽기(diachronic reading)에서는 반 세터즈(J. Van Seters)의 ‘late J’, 존 스톤(W. Johnstone)의 ‘D-version<오경 초본> & P-version<제사장관>’, 블룸(E. Blum)의 ‘KD<오경 초본> & KP<오경본>’, 슈미트(H. C. Schmitt)의 ‘spätdeuteronomist’, 뢰머(T. Römer)의 ‘post-P<페르시아 시대 이후>’를 소개한다(18쪽). 반면에 공시적 읽기(synchronic reading)에서는 클라인즈(D. J. A. Clines), 모벌리(R. W. L. Moberly), 덜햄(J. I. Durham), 후트만(C. Houtman), 이원우(W. W. Lee)를 소개한다(17쪽).

---

\* 한신대학교 박사 과정 중, 구약학

‘신명기 학파가 쟁점으로 떠오름’에서는 본래 E의 작품으로 알고 있었던 출애굽기 32-34장의 본문이 후대 신명기 학파의 작품으로 이해 되면서 신명기 9:7-10:11에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 문제를 쟁점 사항으로 제시한다(20쪽). ‘E 문서와 J 문서가 의문시됨’에서는 먼저 노트(M. Noth)의 암픽티오닉(Amphictyony) 가설을 비판한 렌토로프(R. Rendtorff)의 입장을 제시한다. 이어 렌토로프의 제자인 블롬(E. Blum)이 1990년에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편집 상태를 관찰하여 ‘신명기 학파가 오경 초본(KD)을 최초로 작성했으며 그 후에 제사장 집단이 오경본(KP)을 만들었는데 이 두 오경본은 페르시아 시대 이후(post-P) 융합되는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본문으로 나왔다’고 한 주장을 소개한다(22쪽). 이어 톰슨(T. L. Thompson)과 반 세터즈(J. Van Seters)의 주장을 소개한다. ‘통시 읽기의 발전’에서는 존스톤(W. Johnstone)의 이론을 소개한다. 존스톤은 신명기 학파가 작성한 오경 초본(D-version)이 이후 P 저자가 오경 초본을 바탕으로 제사장판(P-version)을 저술했다고 주장한다(27쪽). ‘오토의 통시 읽기: 하나의 사례’에서는 오토(E. Otto)가 제시한 오경 형성의 일곱 단계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단계는 다음과 같다. ① 원 신명기(Urdeuteronomium: UrD), ② 신명기 초본(Die deuteronomische Deuteronomium: DD), ③ 신명기 중간본(Die deuteronomistische Deuteronomium: DtrD), ④ 땅 점령기(Die dtr Grunderzählung: DtrL), ⑤ 육경 편집(Die Hexateuchredaktion: RHex), ⑥ 오경 편집(Die Pentateuchredaktion: RPen), ⑦ 속필(Fortschreibung).

‘신명기에 대한 새로운 연구’에서 이영재는 그동안 신명기를 요시아 종교 개혁의 산물임을 전제하고 J와 E는 신명기 이전의 작품이며 P는 신명기 이후의 작품이라고 주장하는 의견에 반박하는 레빈슨(B. M. Levinson)의 의견을 소개한다. 레빈슨은 요시아 시대의 원 신명기가 존재했음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신명기를 포로기의 관점에서 왕국 시대를 해석한 포로민들의 해석서’라고 주장한다. ‘창세기에 대한 새로운 연구’에서는 창세기가 신명기보다 이후에 쓰여진 책이라고 퇴머가 주

장했다고 강조한다. ‘P는 누구인가’에서는 P가 독립된 오경 형태의 문서로 이해하는 부류와 P는 독립적인 문서가 아닌 기존의 문서들을 제사장적 관점에서 편집한 편집자라고 하는 부류를 소개한다. 이후 신명기 학파의 쟁점 본문인 출애굽기 32-34장을 가지고 Post-P 이론을 주장하는 퇴머와 블렌킨소프(J. Blenkinsopp), 레빈(C. Levin)과 블롬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이영재는 오경 전체를 이해할 때 ‘거대 구조’(Macro-structure)를 먼저 파악하여 자신이 연구하려는 작은 본문을 오경 안에서 공식적으로 읽고 또한 거기에서 드러난 모순된 본문들이 가지고 있는 통시적인 상호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28쪽). “2장-창세기 신학”에서 한동구는 ‘창세기의 해석의 방법과 과제’, ‘창세기의 신학은 가능한가’에서 창세기 연구의 쟁점 사항이 아직까지 정리되지 못한 이유를 ‘창세기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 없이 창세기의 형성사를 제시한 것’(55쪽)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창세기 신학을 서술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서 본문의 역사적 상황과 사회적 상황에 대한 연구이며 창세기를 ‘각 문헌에 반영된 신학적 성찰을 한 데 모아야 한다’고 말한다(57쪽).

먼저 ‘태고사의 신학’에서 한동구는 창세기 1-11장을 주로 설명할 때 사용해 왔던 ‘원 역사(Urgeschichte)’라는 용어 대신에 창세기를 포함한 오경 전체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서술하고 있으므로 창세기 처음 1-11장의 역사를 ‘태고사(太古史)’로 불려야 한다고 주장한다(58쪽). 또한 태고사(창 1-11장)와 족장사(창 12-50장)를 서로 상이한 주제로 해석하지 않고 범죄와 처벌의 역사를 극복하고 구속의 역사로 넘어가는 연속적인 주제를 가진 한 단위로 해석한다(64쪽).

한동구는 창세기 12-50장의 족장사 가운데 아브라함 이야기의 문학적 삶의 자리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뼈아픈 역사적 현실’을 전제하고 있다고 말한다(66쪽).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새로운 신학적 메시지

로 설명한다. 이후 아브라함을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69쪽), 이삭은 ‘삶의 터전을 확보해 주시는 하나님’(76쪽), 야곱은 벨엘 전승 가운데 ‘하늘 사다리에서 야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82-83쪽)으로 설명한다.

“3장-출애굽기 신학”에서 천사무엘은 ‘시작하는 말’에서 출애굽기 신학을 역사적인 문제와 문학적 문제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출애굽의 기원과 경로, 출애굽한 사람들의 실제적인 규모 등 역사적 문제를 다룬다. 문학적 문제에서 출애굽기의 형성 과정, 통일성, 성서의 다른 책들과의 관계를 말한다. 특별히 천사무엘은 ‘저작권’ 문제를 언급하는데 이것은 출애굽기가 ‘단일 저자에 의해 통일성 있게 형성되었다기보다는 오랜 전승 과정을 거쳐 다양한 자료들이 모여서 형성되었다’(102쪽)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의 최종 형태를 통하여 신앙 공동체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설명한다(102쪽).

출애굽기의 구조와 내용에서 천사무엘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애굽 탈출이 ‘목적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자유’였다고 설명한다(104쪽). 특히 출애굽기에 나타난 십계명에서 출애굽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신정 정치 체계로 설명한다(112쪽). 출애굽기의 하나님 이해에서는 ‘약속의 하나님, 해방과 자유의 하나님, 자연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설명한다.

“4장-레위기 신학”에서 김영혜는 ‘시작하는 말’에서 레위기를 레위기의 칠십인역(LXX) 이름인 ‘레비티콘(Levitikon)’과 ‘와이크라’ 대신에 랍비 전통에서 사용하는 ‘토라트 코하님’을 설명하면서 ‘토라트 코하님’이 레위기의 내용을 잘 대변해 준다고 본다(123쪽). 그러면서 레위기의 예식에 나타난 인류학적 접근, 율법과 고대 근동의 관계, 레위기의 통일성을 차례차례로 설명한다. 특별히 레위기의 연구 동향 가운데 ‘P와 성결 법전’과 ‘P와 D’의 관계에 주목한다. 김영혜는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P가 D보다 후대의 것으로 해석하지만 카우프만(Y. Kaufmann),

밀그롬(J. Milgrom), 하란(M. Haran)은 P가 D보다 시기적으로 앞선 것으로 해석하는 데 유의한다. 이어서 ‘D와 성결 법전’의 관계도 조명한다. 김영혜는 ‘구조와 신학’에서 레위기를 ‘제사의 종류(1-7장), 회막에서의 예식(8-10장), 정결한 것, 부정한 것(11-16장), 성결 법전(17-27장)’으로 나누어 소개한다. 특별히 정결한 것, 부정한 것을 설명할 때 부정에 관한 히브리어 용어 ‘타메, 세케츠, 피굴, 토에바’가 서로 다르게 사용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성결 법전에서 사용되는 거룩은 ‘구별’이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백성과 구별되며 엄격한 도덕 생활이 요구된다고 본다.

“5장-민수기 신학”에서 유윤중은 ‘민수기의 신학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민수기의 신학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라는 질문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유윤중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으로서 ‘미시적 연구 방법’(149쪽)과 ‘거시적 연구 방법’(150쪽)을 사용한다. 민수기 신학의 연구 동향에서 역사 비평학자 가운데 그레이(G. B. Gray)와 버드(Philil J. Budd), 궁켈, 그레스만(Hugo Gressmann), 노트(M. Noth)를 소개하며, 공시적 연구학자로 차일즈(B. S. Childs), 만(T. Mann), 더글라스(M. Douglas), 올슨(Dennis Olson), 밀그롬을 소개한다. 유윤중은 미시적 관점에서 ‘장소’를 기점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한 출정의 준비’(1:1-10:10)로 ‘시내 산’을, ‘성막을 중심으로 한 출정의 실행 역사’(10:11-36:13)로 ‘바란 광야, 신 광야, 모압 평지’로 구분한다. 거시적 관점에서 출애굽기와 민수기, 레위기와 민수기, 민수기와 신명기 사이의 유사성을 소개한다. 민수기의 신학에서는 각각 ‘인구 조사, 시내 산 언약(율법), 반역과 진노, 용서와 은혜, 거룩, 광야의 안내자 하나님, 약속의 땅, 지도력’을 소개한다. 특별히 민수기에 나타난 율법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타난 율법 반복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개정된 율법의 성격을 소개하면서 율법의 융통성을 강조한다(169쪽).

“6장-신명기 신학”에서 이영미는 가장 먼저 신명기가 ‘새로운 하나님의 가르침을 선포하는 책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가르침(율법)의 뜻을

새 시대에 맞게 갱신하여 그 참 뜻을 회복하려는 회복의 신학, 갱신의 신학을 피력하고 있다'(183쪽)고 주장한다.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신명기 연구가 법전의 기원과 내용, 저작 시기, 신명기 역사와의 연관성에 치중해 있다고 소개하면서 특별히 신명기의 저자와 기원에 대한 여러 가설을 소개한다. 특별히 신명기 기원 가운데 폰 라트(G. von Rad)와 니콜슨(E. W. Nicholson), 맨레이(T. Manley)와 맥커리(F. R. McCurley)의 북 왕국설을 주로 소개한다(184-185쪽). 신명기의 구조에 대해서 이영미는 모세의 3개 설교에 따른 표제를 중심으로 십계명의 구조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본다. 신명기 신학에서 이영미는 먼저 '역사적 회고와 모세의 훈계'(1-4장)를 소개한다. 또한 '율법의 책의 서설'(5-11장)에서 이영미는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에 대해서 신명기는 '출애굽기의 경험'에 근거하며 출애굽기는 '창조 신앙 고백'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196쪽).

'율법의 책'(12-26장)에서는 클레멘츠(R. E. Clements)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신명기 법전과 계약 법전의 유사성을 소개한다(201쪽). 또한 레빈슨(B. Levinson)이 신명기 12-26장의 사회적 배경을 '도시 사회'로 규정한 것도 소개한다. 카우프만(S. Kaufmann)과 브라우릭(G. Braulik)의 의견을 수용하여 신명기 법전이 신명기 5장의 십계명 순서와 유사하다고 소개한다(204쪽). 마지막으로 '율법의 책 후기'(26:16-28:68), '모세의 세 번째 설교: 모압 평지에서의 계약(29-30장)', '모세의 마지막 축복과 죽음'(31-34장)을 소개한다. 결론에서 이영미는 시내 산 계약과 하나의 성소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4가지 하나님의 이해를 말한다; '이스라엘을 낳으신 하나님(창조주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심판의 하나님), 화를 더디 내시는 하나님(공휼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계약의 하나님)'(217-220쪽).

7장부터 9장까지는 오경 연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은 문제를 정리하고 있다. 7장에서는 토라 시 연구, 8장에서는 토라 법전의 신학, 9장에서는 토라와 여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7장-토라 시 연구”에서 김창주는 시편 연구의 거장인 궁켈(H. Gunkel)이 시편을 분류했던 방법대로 ‘탄원시, 찬양시, 감사시, 제왕시, 성전시’ 등을 다루고 난 이후 가장 마지막에 토라 시를 다루고 있다고 소개한다. 그러나 최근의 림버그(J. Limburg)는 그의 책 *Psalms for Sojourners*에서 토라 시인 시편 1편을 가장 먼저 다루고 있다. 또한 메칸(J. Clinton McCann Jr.)은 그의 책 *A Theological Introduction to the Book of Psalms: The Psalms as Torah*에서 시편 전체를 토라 시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토라 시 연구를 집필한 김창주는 먼저 이러한 시편 연구사를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시편 가운데 대표적인 토라 시인 시편 1, 19, 119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서 야웨의 교훈, 즉 토라르 핵심적인 단어로 삼고 있다’(224쪽)고 주장하면서 토라 시가 시편의 최종 편집과 경전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김창주는 이러한 전제 아래 토라 시의 범위를 논의한다. 토라 시의 범위에서 김창주는 브루그만(W. Brueggemann)의 ‘방향 제시-현실 적용-재 구성’ 단계에 따라 토라 시가 시편의 자리 가운데 서두에서 토라 시 본래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227쪽). 또한 토라 시는 ‘시편 편집의 시각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토라 시의 범위는 “족장들의 이야기로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는 설화에 적용된다. 사제와 왕에게도 해당된다. 창조 세상의 질서와 모든 만물에게도 적용된다. 개개인의 삶에 적용된다.”(229-230쪽)로 이해한다. 시편의 저작 시기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지만 포로기 이전과 포로기 이후로 구분하는 방법을 주장하면서 시편의 최종 편집 단계에서 작성되었거나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시편 1편의 편집 시기는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서론 격인 맨 처음에 배치되어 경전의 권위와 위상을 강조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231쪽).

토라 시의 문학적 특징에서 김창주는 시편 119를 베스터만(C. Westermann)의 의견을 수용하여 시편이 시편 1-119편으로 구성되어 토라 시로 시작하고 토라 시로 종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235

쪽). 그리고 시편이 모세 오경의 구조에 따라 다섯 권으로 형성된 것을 오경과의 연관성에 착안한다(236쪽). 또한 시편 119편이 형식 면에서 시편 1편을, 내용 면에서 시편 19편을 따르고 있음에 각각의 시편 1, 19, 119편이 서로 형식과 내용 면에서 상호 관계를 보인다고 설명한다(241쪽).

토라 시의 신학적 의의에서는 ‘구약 성서와 토라, 시편과 토라, 경전과 토라 시’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특별히 시편 1편이 시편 가운데 가장 먼저 오게 된 이유는 시편의 출발점이 토라이고 토라를 통하여 시편을 안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257쪽).

“8장-토라 법전의 신학”에서 박경철은 토라는 기본적으로 ‘가르침’이라고 말한다. 이 가르침은 ‘사랑과 보호의 약속’이면서 동시에 ‘율법과 복음의 통일성’이며 이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놓여 있다고 강조한다(269쪽). 박경철은 한 권의 토라로 구성되어 있는 법전을 계약 법전(출 20:22-23:33), 성결 법전(레 17-26장), 신명기 법전(신 12-26장)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특별히 최종적인 형태로 구성된 오경 안의 법전은 모두 ‘한 분 하나님의 동일한 뜻에 따라 하나의 단일한 문서로 묶여진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한다(306쪽). 또한 토라 법전의 구조는 ‘종교적인 법조항들’이 ‘일반 사회법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토라 법전 가운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보호 규정들’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박경철은 결론에서 토라 안에 나타난 세 법전들은 ‘종교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결정적인 것은 이 세 개의 서로 다른 테마들이 한 분 하나님의 공통된 요구로 등장하고 있다’고 강조한다(307쪽).

“9장-토라와 여성”에서 유연희는 토라의 내러티브 가운데 드러나는 고대 이스라엘 여성의 지위가 결코 낮거나 억압된 모습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여성이 종교, 사회 문제에서 높은 지위를 누렸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위하여 유연희는 먼저 창세기 2-3장을 통하여 최초의 여성, 이브를 소개한다. 또한 사라, 리브가, 레아, 라헬, 빌하, 실바를

이스라엘 민족을 창시한 여자 조상으로 소개한다. 또한 출애굽기 1-2장에 나타나는 열두 명의 딸을 ‘출애굽의 해방자’로 소개하고 있으며 민수기에서 최초로 유산 상속을 받은 슬로브핫의 다섯 딸을 통하여 생겨난 상속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토라의 법전을 통해 고대 이스라엘의 여성의 지위가 고대 근동의 법과 비교할 때 지위가 높았으며 존중받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 2. 평가

2.1. 하나의 주제를 통일성 있게 집필하기 위해 여러 저자가 나누어 쓰는 것과 서로 다른 주제라도 한 저자가 통일성 있게 집필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 특별히 『토라의 신학』은 소위 오경에 속해 있는 소위 5권의 성서(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쟁점 사항인 주제를 여러 저자가 나누어 집필하고 있다. 이것은 책 구성에서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보여준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각 권과 주제에 관한 다양한 해석학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여러 저자들 한 권의 책에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다양한 신학적 관점을 가진 저자를 통하여 오경을 여러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를 유발한다. 그러나 가장 큰 장점인 이 점이 오히려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다. 서로 다른 시각과 견해를 가진 저자들이 책을 집필하다 보니 오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상충되어 나타난다. 창세기 신학을 집필한 한동구는 자신의 창세기를 접근하는 방법론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창세기의 최종 형태에 근거한 ‘창세기의 신학’을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으나, 이는 오랜 신학적 성찰이 모두 배제된 마지막 단계인 유대교의 창세기 이해에 불과하다. ‘창세기의 신학’은 각 문헌에 반영된 신학적 성찰을 모자이크처럼 한데 모으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57쪽). 그러나 토라 법전의 신학을 집필한 박경철은 자신의 논문의

부제를 ‘토라의 최종 형태 구성이 지닌 신학적 의미’로 규정한다(265 쪽). 한동구가 말하는 ‘최종 형태’와 박경철이 주장하는 ‘최종 형태’는 같은 말이지만 자신의 방법론을 소개할 때 사용하는 같은 단어에 포함 되어 있는 의미는 서로 상충된다. 따라서 『토라의 신학』의 한 책에서 서로 다른 방법론을 가진 저자들은 오경을 바라보는 시각적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면서도 가장 큰 단점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책을 읽는 독자는 결국 서로 다른 방법론으로 책을 집필한 저자를 비판적으로 보면서 읽을 때 곳곳에 드러나는 자신의 관점과 상충되는 방법론이 나타날 때마다 어떤 방법론을 선택할 것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 물론 책의 머리글에서도 “『토라의 신학』은 하나의 방법론을 고집하기보다 저자들의 다양한 신학적, 방법론적 입장을 존중하면서 다양한 해석학적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6-7쪽)고 밝히고 있다. 다양하게 드러나는 해석학적 결과들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책을 읽는 독자의 몫이다.

2.2. 1997년 렌토로프(R. Rendtorff)는 자신의 소논문 “Directions in Pentateuchal Studies”(오경 연구의 최근 동향)<sup>1)</sup>에서 “오경을 전체로 이해하는 것이 오경 연구의 새로운 방향이다.”라고 주장하였다.<sup>2)</sup> 렌토로프의 주장은 오경에 대한 연구를 단지 공식적인 입장에서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친 것이 아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전체로서의 오경 연구는 그것의 최종 형태에 강조점을 두고 그것을 오경의 해석과 평가에 있어서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경 연구의 방향은 오경의 이전 상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경의 현재 형태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의 문학 구조와 텍스트의 역사, 텍스트에서

1) 이 논문은 와이브레이(R. N. Whybray)의 오경 입문(Introduction to the Pentateuch)을 번역한 차준희의 『오경입문』의 부록 1에 수록되어 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와이브레이(R. N. Whybray)의 『오경입문』 가운데 223-255쪽을 참조하라. 와이브레이, 『오경입문』, 차준희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24.

2) 와이브레이, 『오경입문』, 5.

말하는 신학적인 개념들을 파악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sup>3)</sup>

렌토로프는 공시적 입장인 정경 비평을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통시적 입장인 역사 비평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아쉬운 것은 오경 각권에 대한 방법론이 거의 대부분 정경 비평과 구조주의 비평에 치우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비평은 요즘 성서학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론 가운데 하나이다. 오히려 역사 비평은 각 권의 서론에서 잠시 소개하는 정도로 지나치고 있다. 분명히 성서를 연구하는 방법론은, 설령 지금 우리가 역사 비평을 넘어 정경 비평과 구조주의 비평 등을 선호하고 있다 할지라도, 역사 비평을 간과하면서 진행될 수는 없다. 오경 각 권에서 드러나는 역사 비평의 쟁점 사항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점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의 정경 비평과 구조주의 비평에서 보완하고 절충될 수 있는지 소개하고 서술했다면 오히려 균형 잡힌 시각으로 『토라의 신학』을 읽을 수 있었을 것이다. 또 이 점을 충분히 보완하기 위해서 각 권의 연구사를 항목으로 설정하여 집필했다면 각 권을 읽는 독자가 좀 더 유용한 정보를 갖고 오경 각 권을 읽을 수 있었을 것이다. 오경 각 권의 쟁점 사항은 각 권마다 다양하게 드러난다. 특별히 오경의 쟁점 사항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P의 문제는 P가 주로 나타나는 레위기, 신명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경 각 권과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다.

2.3. 그러나 최근에 집필된 오경 연구에서 ‘토라 시 연구’, ‘토라 법전의 신학’, ‘토라와 여성’에 대한 주제는 이전에 연구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던 주제들이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학자들이 집필한 오경과 관계된 책 가운데 이 주제들을 소개한 적은 거의 없었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읽는 독자에게 이 주제는 오경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책은 한신대학교 김이곤 선생님의 은퇴를 기념하면서 헌정한 책이다. 보통 은퇴를 하는 선생님께 책을 헌정하는 방식은

3) 와이브레이, 『오경입문』, 245.

선생님께 배운 제자들이 하나의 주제가 아닌 여러 주제를 각자 집필하여 한 권의 책으로 모아 선생님께 헌정하는 방식이었다. 그렇게 책을 헌정하다보니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책을 만들기 보다는 논문을 모으는 일에 치중하였다. 그러나 『토라의 신학』은 ‘오경’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각 권이 집필되고 새로운 주제까지 첨가되었다. 이러한 헌정 방식은 상당히 신선하다.

\* 접수일 2010년 8월 13일, 수정일 2010년 8월 28일, 게재 확정일 2010년 8월 28일